

# 30년 숙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오늘 첫 발 내딛는다

정부에 통합의대 계획·추천서 전달  
김 지사, 교육부·복지부에 협조 요구  
오는 29일 의평원에 예비인증 신청  
조규홍 "지역의견 수렴시 신속 검토"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추진에 합의하면서 전남도민의 30여 년 숙원 사업이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남도가 통합의대 기본계획서와 추천서를 22일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통합의대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날 통합의대 신설 기본계획서를 작성, 전남 국립의대 정부추천 용역과제사안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용역사는 법률 검토 등 보완작업을 거친 뒤 최종 기본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전남도는 22일 도지사 결재를 받은 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주무부처인



김영록(오른쪽) 전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면담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식 추천할 예정이다.

전남도 추천에 따라 오는 29일에는 양 대학이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 연말까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이다. 예비인증 심사는 의예과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총 △ 기본 진료역량과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使命) △졸업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입학정책 수립·시행 △특

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기속사 운영 △의학교육 담당기공과 전임교수 확보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학생 복지·편의시설 △관리 인력 △예산 △학장 및 보직자 책임 명시 등 16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양 대학 통합발표 직후 국회 및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냄과 동시에 양 대학에 통합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대학에서 통합 의과대학 명의로 신청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에 통합 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우원식 국회 의장을 만나 통합의대 추진에 따라 정부에서도 2026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간청했다.

김 지사는 "여야가 공동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통과될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돼 통합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2월 안에 통합하면 3월까지 2026년 의대 신입생 정원 200명 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 대학 총장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지역 의견과 절차에 따른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통합 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또 의평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통합 계획 등 상세 내용이 제출이 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강 시장, 민·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재개 건의

"市 역부족... 정부 관심·지원 절실"  
韓 "실질적 도움 방안 강구" 화답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에게 지난 10월 29일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친서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안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됐다. 또한 전남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제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며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다"며 "민·군공항은 국가의 핵심시설인 만큼 이전 당사자로 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

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직자 홍보반을 편성해 무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무안군민과 함께한 소음대책토론회, 방문설명회,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회담 등을 진행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왼쪽) 광주시장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